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8(土)	9(日)
구름 많음 11/18℃	구름 많음 7/16℃

News

- 광원 건강 전국 최약 ②
- 열린 제1전투비행단 ③
- 김연아 오늘 환상 연기 ⑧

Books

- 왜 히틀러에 열광했나 ⑭

Entertainment

- 예능계 '아저씨 돌' 뜬다 ⑧



- 실존인물 영화 속속 제작 ⑨

Wellbeing

- 식품 탐구 - 핑 ⑬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척추 추나 클리닉
정연한의원
광주 성무지구 5층
문의 062-220-1111



“호텔 황무지 광주에 최고 자부심 심겠다”

‘특 1급’ 라마다 플라자호텔 김대원 사장의 당찬 도전 평생 번돈 500억 올인... 빛고을 상징으로

김대원(48·사진) 라마다 플라자 광주 호텔 사장은 ‘도박’이라고 했다. ‘호텔 황무지’로 알려진 광주에다 500억원이라는 거액을 쏟아부어 특 1급 호텔을 설립한 것을 두고, 김 사장은 ‘도박’이라고 거듭 말했다.

지난달 23일 라마다 호텔이 상무 신도심에 문을 열던 날, 김 사장은 만감이 교차했다. 고교 졸업 후 제조업에만 30여년을 몸담았던 기억들, 호주 이민까지 감행했던 지난 날들... 주머니를 툭툭 털어 호텔에 투자를 결심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그러나 무엇보다 광주의 척박한 관광환경을 감안, 특 2급 호텔로 좀 더 쉽게 가려던 ‘안전운행’을 마다하고 특 1급

호텔로 끌어올린 모험이 버리를 떠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살아온 열정, 벌었던 돈 모두가 이 호텔에 던진 겁니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물론 후회는 없습니다. 제 생활 신조가 ‘최고가 아니면 시작하지도 말자’는 것이니까요.”

김 사장이 호텔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땅에 대한 애착과 승부사로서의 기질 때문이다. 강진 출신으로 강진농공고를 졸업한 이듬해 시멘트 2차 가공업으로 사업에 뛰어들 그는, 이후 아스콘업·건축폐기물업·부동산업 등을 만나며

착실히 돈을 모았다. 사업가 담지 않게 담배와 술·골프, 심지어 커피까지도 멀리하면서 돈을 모은 김 사장은 대신 노인요양원, 소년소녀가장 등에게는 수백만, 수천만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97년 현재의 호텔부지 1천79㎡(326평)를 평당 650만원에 매입했다. 상무지구 개발바람이 불면서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모 그룹이 호텔부지로 전적어 당시 시세보다 30%를 더 주겠다고 땅을 팔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스스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10년전 가족들과 호주로 이민했다가,

홀홀 단신으로 고국에 돌아온 것도 새로운 도전 때문이지요” 김 사장은 “객실에 서부터 사우나, 연회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고객에게 최고만을 선사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외관과 객실 인테리어는 호주 시드니의 ISM DESIGN Co., 로비와 스카이라운지는 일본의 SUPER TOMATO의 손을 거쳐 라마다 호텔이 탄생했고 라마다 브랜드 중 최상급 호텔에 주어지는 ‘플라자(Plaza)’ 칭호를 얻게 된 것이다.

김 사장은 “대박을 원하는 도박이 아니라, 라마다가 오래도록 광주의 상징으로 불리길 바랄 뿐”이라며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면 영업을 불우이웃에게 끊임없이 돌리는 ‘기부천사’로 기억되고 싶다”고 환하게 웃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008 최고의 미술축제로 자리매김

광주비엔날레 내일 폐막

‘연례보고-일 년 동안의 전시’를 타이틀로 지난 9월5일 개막한 세계 현대 미술의 향연 ‘2008 광주비엔날레’가 66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9일 폐막한다. 이번 비엔날레에는 36개국 127명의 작가가 참여, 실험성 강한 작품 550여점을 선보여, 프랑스 르몽드지 등 세계 유력 언론과 미술계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주제 없는 전시를 표방하고, 전시 장소도 대인시장, 의재미술관 등 광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파격적인 기획으로 아시아 최고 비엔날레로서 입지를 굳건히 지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인시장은 이번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시장 상인들이 활기를 되찾고 작가촌, 전시장이 생겨나는 등 광주의 새로운 문화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첫 외국인 사람탑인 오쿠이 엔위저 예술 총감독과 광주 비엔날레 재단의 축적된 노하우와 역량이 조화를 이뤄 수준 높은 관람 문화도 만들어 냈다.

또 과거 관 주도의 딱딱했던 단체관람에서 벗어나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현대 미술의 진수를 만끽했다. 관람객은 지난 2006 광주비엔날레(41만6천591명)보다 감소한 35만여 명에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외국인 관람객들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내실 있는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함께 미술학도들의 토론의 장인 글로벌 인스티튜트와 미술 전문가들을 위한 국제학술회의는 광주비엔날레가 세계 미술의 담론을 생산해 미적 공간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한국은행은 7일 기준금리를 현행 4.25%에서 4.00%로 내린다고 발표했다. 총액한도대출 금리도 현행 2.50%에서 2.25%로 인하했다.

지난달 9일 기준금리를 5.25%에서 5.0%로, 28일 다시 4.25%로 인하한 뒤 이번엔 또다시 내림으로써 1개월만에 인하폭이 1.25% 포인트에 이르게 됐다.

이번 금리인하는 경기의 빠른 하강을 막고 가계와 중소기업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상태이며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금리인하의 배경에 속한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아래로 내려오고 세계 각국이 금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한은의 금리 인하에 기여했다.

한편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 여파로 시중은행들도 잇따라 예금금리를 내리고 있다.

韓銀 기준금리 0.25%P 인하

알 낚찬 석류 고흥군 포두면 상포리에서 석류 수확이 한창이다. 고흥 석류는 일조량이 풍부해다 해풍을 많이 받아 맛이 뛰어난 것은 물론 게르마늄이 다량 함유된 토양에서 생산돼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예금금리를 최대 0.25%포인트 인하하고 우리은행은 오는 12일부터 수신 금리를 연 0.10~0.25%포인트 안의 범위에서 인하하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10일부터 정기예금 금리를 내리기로 했으며 국민은행도 시장 상황을 감안해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YB윤도현밴드
광주콘서트

2008. 11. 29 SAT 7:30PM, 30 SUN 5:00PM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문의: 062-220-0541, 1588-0766
티켓구매: 티켓마루, 티켓링크, 옥션티켓